

2014년 근린재생선도사업

모니터링 및 추진과정

임강륜
건축도시공간연구소
연구원

근린재생선도사업 모니터링 개요

국토교통부와 도시재생지원기구는 도시재생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도시재생선도지역의 도시재생계획 수립·시행을 위해 2014년 6월 전략계획·활성화계획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공고하였으며, 추후 사업시행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각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계획이다. 또한 선도지역의 추진실적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평가계획(안)을 마련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를 통하여 지자체의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서 자문·전문적 지원과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하였다. 이와 함께 모니터링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.

이에 따라 도시재생지원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상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며, 상시적으로 지자체에 대하여 정보제공 및 컨설팅* 등을 수행하였다. 특히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진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유도하였다.

도시재생지원기구는 각 선도지역 상시모니터링과 사업관리카드 등을 통해 사업 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으며, 지자체 요청사항들의 파악 및 점검을 통해 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. 또한 현장실사를 통한 현장파악과 도시재생 관련 주요 행사(주민설명회,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소모임, 주민회의,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식 등) 개최 시 참석하여 진행 과정을 점검하였다. 아울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,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인 국토교통부와 논의하였다.

*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도시재생선도지역 외 충주시·문경시·나주시·김천시·경기도청·평택시·강화군 등 지자체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컨설팅 및 자문을 수행하였다.

근린재생선도사업 모니터링

항목 및 주요 내용

선도지역의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참여 기반 구축, 행정 및 참여주체 간 협업체계 구축, 활성화계획 수립의 적정성, 계획수립 과정에서의 관련 주체 간 협업, 사업계획과 집행의 충실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였다.

모니터링 항목 및 주요 내용

모니터링 항목		모니터링 주요 내용
거버넌스 체계 구축	주민참여 및 역량 강화	· 기존 활동 조직 및 이해관계자 파악 ·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· 정기적 소모임 구성 및 운영 · 주민리더 발굴 · 주민(상인)협의체 구성 및 운영 ·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
	행정 지원 및 협업체계 구축	· 전담조직(전담인력) 구성 및 운영 · 행정협의회 등 관련 부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· 조례 제정
	전문가 활용 체계 구축	·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 선임 및 활동 ·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·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· 관련 전문가 활용 · 지역단체 및 기업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
활성화계획 수립		· 활성화계획 수립 발주 및 발주방식 ·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현황 조사의 충실성 · 활성화계획안의 적정성 및 합리성 · 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· 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관련 주체 간 협업 · 연계 가능한 사업의 발굴 (부처협업사업, 기 추진 사업, 타 부서 사업, 민간투자사업 등) · 지방위원회 의견 수렴 및 반영 ·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견 반영
예산 확보 및 집행 실적		· 매칭 지방비 확보 · 교부된 국비의 집행 실적
모니터링 결과 반영		· 지원기구 모니터링에 대한 협조 및 수용 노력 ·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피드백의 충실성 · 리뷰보드 결과 반영 내용

자료: 2014 도시재생지원기구 모니터링 보고서

근린재생선도사업 활성화계획

승인 과정 및 주요 사업 내용

도시재생선도지역은 모니터링 및 관문심사를 통하여 지난 2014년 11~12월 지자체별로 주민·공공기관·지역단체 등과 함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입안하였고,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안을 확정하였다.* 국토교통부는 2017년까지 4년간 이들 4개 지역에 1,100억 원(지방비 50%)을 지원하고, 문화체육관광부·중소기업청 등 12개 관계 부처도 25개 사업에 2,215억 원을, 협업을 통해 함께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. 또한 신설되는 주택도시기금 등 정책금융의 활용, 건축규제 완화 및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총 1,4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.

근린재생선도사업

단계별 관문심사 주요 내용

도시재생지원기구는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수행과 각 선도지역의 사업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단계별 관문심사 방식(사전점검 - 기반 구축 - 활성화계획 수립 - 사업 추진)을 도입하여 보완 및 필요사항을 점검하였다.** 사전점검단계에서 주민참여 전담조직 구성 등 기반 구축이 우수한 지자체(창원·서울·영주)는 활성화계획 수립단계부터, 그 외 지자체는 기반 구축단계부터 진행하였다.

* 국토교통부는 2014년 11월 13곳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중 1차로 부산시(경제기반형)·서울시·창원시·영주시(근린재생형) 4곳에 대해 총 5,529억 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, 이후 12월 2차로 대구 남구·광주 동구·천안·공주·군산·목포·순천·대백(근린재생형, 8곳)에 대해 총 6,500억 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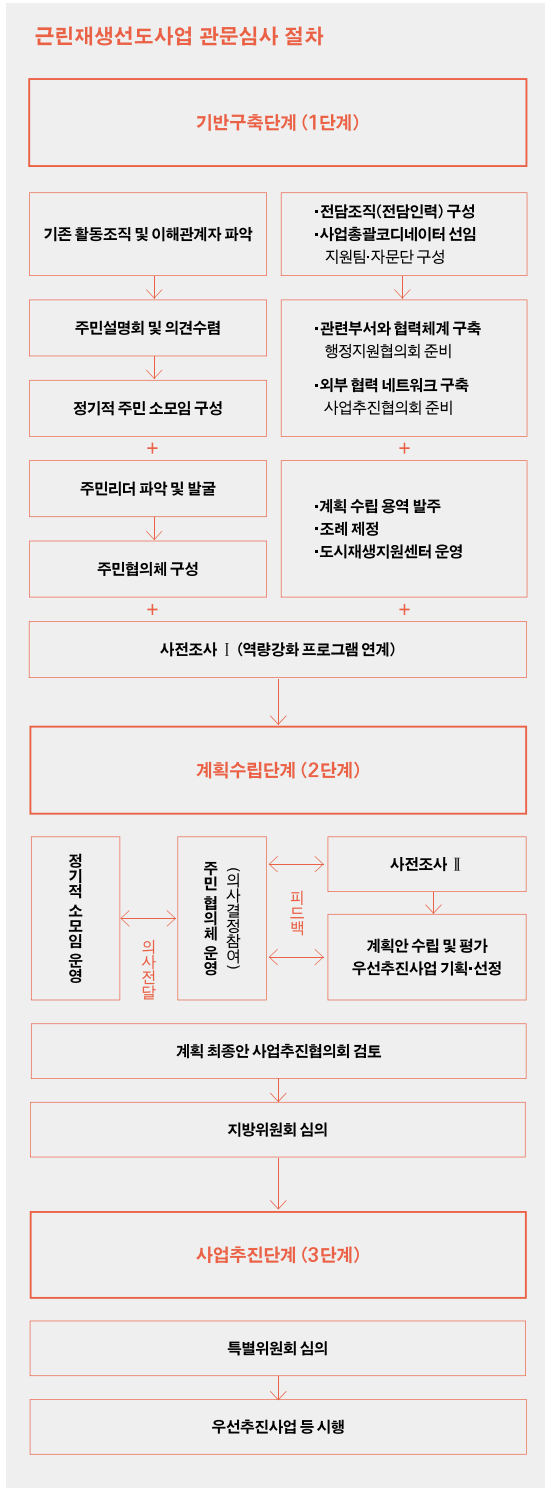
** 기반구축단계에서는 도시재생·문화·상권(산업)·복지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진행하였으며, 활성화계획 수립단계에서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과 문화·경제·복지 등 도시재생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하였다.

근린재생선도사업 활성화계획 주요 내용

구분	주요 사업 현황	주요 사업 내용
서울시 종로구 (459억 원)	· 1970년대 봉제산업이 밀집되어 형성됨 · 봉제산업의 침체와 8년간의 뉴타운 사업 지연에 따른 갈등과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교통반면 지역	· 기존 봉제산업 특화를 위해 폐· 공가를 청년 디자이너들의 의류상품 제작 등 봉제 작업공간으로 제공 · 패션심가와 안정적인 판로 구축을 통한 유통 플랫폼 조성을 추진함 · 유네스코 유산 등록을 추진 중인 한양 성곽을 활용한 마을관광자원 개발 ·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함
창원시 (1,765억 원)	· 국내 첫 자유무역항인 마산항과 제조업이 활황인 지역 · 공공청사의 이전 및 마산항 기능 축소 등으로 인구 감소(60만 → 40만) 및 쇠퇴가 심화된 지역	· 이은상 등 지역 예술가 등이 활동했던 기존 골목길을 살린 창동예술촌, 창작공예촌을 활성화 · 마산항 입항선 폐선로를 활용한 공원 조성 및 마산항 워터프런트 조성 등 연계
영주시 (353억 원)	· 중앙선과 영동선 철도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 · 1973년 영주역 이전으로 원도심(영주 1·2동 일원)의 빈 점포 증가 및 인구 감소 등 쇠퇴가 심화된 지역	· 1950년대 근대 한옥건물 등이 남아 있는 후생시장과 중앙시장의 경관 개선 및 리모델링 · 고령화된 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한 생활공예 등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육성 사업
대구 남구 (240억 원)	· 대학 캠퍼스 외곽 이전에 따른 상권 침체 · 취약계층이 밀집한 주거지 노후화 등 주거환경이 악화된 지역(대명동 일원)	·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보건· 의료 관련 대학과 연계한 건강· 복지 프로그램 운영 · 예술고· 대학, 공연예술인 등과 연계하여 생활문화 및 공연문화 활성화 사업 등
광주 동구 (506억 원)	· 지역의 행정· 상권의 중심지 · 도청· 시청 등의 이전에 따라 도심 기능이 약화된 원도심(충장동· 동명동 일원)	·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성(2015.9.)과 연계한 도심문화산업 유치 및 예술의 거리 활성화 · 생활공예 활성화, 근대양옥 정비 등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
천안시 (2,080억 원)	· 천안시의 행정· 문화· 상권의 중심이었으나 시청· 경찰서 등의 신시가지 이전으로 쇠퇴한 지역(천안역 일원)	· 인근 지역대학과 산업단지 때문에 증가하는 청년층과 외국인 학생, 근로자 등 다문화계층을 위해 빈 건물을 활용한 대학생 커뮤니티 기숙사나 창업· 창작 공간을 조성, 다문화특화거리와 다문화지원센터 조성 등
공주시 (1,036억 원)	· 문화재 보존에 치중한 환경 정비 소홀로 쇠퇴한 원도심(웅진동· 중학동 일원)	· 고도(高度)의 풍부한 역사관광자원을 활용한 재생사업을 추진 · 무령왕릉, 공산성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원도심 곳곳에 '테마가 있는 이야기 길'을 조성 · 관광객 편의를 위한 보행 및 가로환경 정비 등을 통한 도심관광 활성화 추진
군산시 (727억 원)	· 내항의 기능 상실과 신시가지로의 상권 이동으로 쇠퇴한 원도심(월명동 일원)	· 근대건축물(히로쓰가옥) 복원· 정비 등을 통한 근대역사경관 조성 및 게스트하우스, 체험전시관 조성 · 동국사, 근대역사박물관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도심체류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
목포시 (339억 원)	· 목포시의 중심지였으나, 하당· 남악(도청 소재)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유출 등 쇠퇴한 원도심(목원동 일원)	· 목포역~유달산 관광루트 개발 · 지역 대표음식 특화거리 조성 · 공가를 활용한 지역 출신 작가마을 조성 및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
순천시 (1,480억 원)	· 전남 동부권 교통· 행정의 중심지 · 외곽 신시가지 조성으로 공동화된 원도심(향동· 중앙동 일원)	· 순천부읍성 등 지역자산 활용 및 도심 공원· 정원 조성 등을 통해 도심관광 활성화 · 노후 주거지에 옥상녹화,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코마을 조성 · 공가를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 주민소득 창출사업을 함께 추진
태백시 (103억 원)	· 1980년대까지 석탄산업 절정기 때의 지역상권 중심지 · 석탄사업 사양화에 따른 쇠퇴지역(통동 일원)	· 공· 폐가를 활용하여 보건· 보육시설 등 주민 편의· 복지시설 확충 ·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 및 유희시설을 활용한 관광자원화, 주민 일자리 창출 사업 등

자료: 국토교통부 보도자료, 2014.12.15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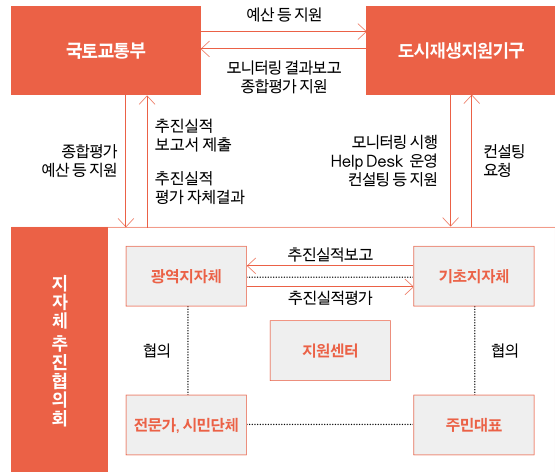
근린재생선도사업 관문심사 절차



근린재생선도사업 성과평가 개요

도시재생선도지역은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자체가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및 사업 추진성과 등을 점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시·도사는 지자체가 제출한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*하고, 국토교통부 장관은 종합평가**를 실시하여 부진사업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,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성취동기를 높인다.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추진실적 평가체계와 절차는 아래와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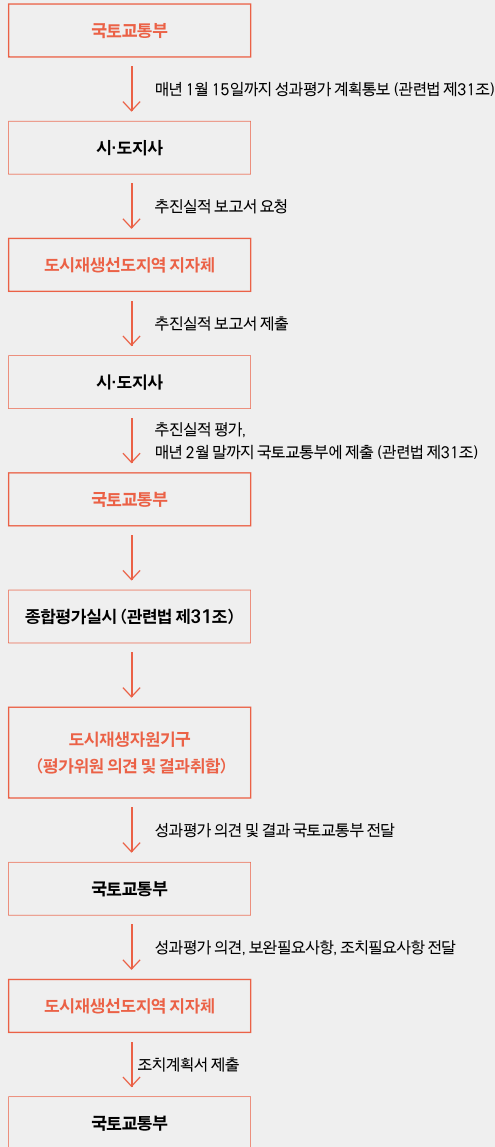
도시재생선도지역의 추진실적 평가체계



* 광역지자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소관 지자체의 성과관리 추진실적보고서를 반영하여 추진실적을 평가,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로 제출하여야 한다.

** 국토교통부는 ①지자체의 성과관리 추진실적보고서, ②광역지자체의 추진실적평가 결과, ③도시재생지원기구의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종합평가를 시행하였다.

도시재생선도지역의 추진실적 평가절차



2014년 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실적 평가 과정 및 향후 계획

국토교통부와 도시재생지원기구는 평가결과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 및 단계별 관문심사 점검위원 등 분야별 위원 중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. 또한 선정된 평가위원회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각 사업유형과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지자체 실적자료와 도시재생지원기구 모니터링 의견, 평가지표를 평가 이전에 송부하여 충분히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이후 평가 당일 평가위원회는 지자체별 담당 도시재생지원기구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받고, 질의를 통하여 추진실적 보고서 및 모니터링 보고서 외 추진과정과 현장 상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. 평가 이후 각 선도지역에 대한 평가위원별 의견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종합하여 지자체에 평가결과 조치요구사항을 송부하고,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회신하도록 하였다. 해당 조치계획에 대한 이행결과는 지원기구 모니터링 시 집중 점검하기로 하였다.

2014년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추진실적 평가는 선도지역 지정(2014년 5월), 활성화계획 승인(2014년 12월) 일정을 고려하였을 때 지자체별 부족한 점을 진단하고 우수한 점을 지속시키는 동시에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가 해당 결과를 토대로 계획수립과 변경·집행·사업시행 등 전반적인 체계를 개선 및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다. 또한 국토교통부와 도시재생지원기구 역시 추진실적 평가과정을 통하여 정책을 마련하고, 법령과 각종 가이드라인 등을 개선하는데 있다.